

2030 아시안게임 총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충청권에서는 세계종합스포츠대회 개최가 전무한 상황에서 「2030 아시안게임」을 충청권이 공동 유치하여 지역스포츠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대회개요

- 명 칭 : (가칭)2030 충청 아시안게임 *주관-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 개최시기: 2030년 9월 ~ 10월 중(16일간)

- 개최지 :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
- 규 모 : OCA 회원 45개국, 3만 여명 참가(선수 12,000명)
- 대회종목: 40봉목 67 세부종목 465경기

나. 개최 필요성

- 충청권 최초로 국제경기대회 개최
- 국제적인 체육시설 건립으로 스포츠 인프라 확보
- 충청권 4개 시·도 비용분담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대회 지향
- 충청권 공동개최로 청주국제공항 홍보 및 활성화 기대
-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성공개최 마중물 역할 수행

다. 기대 효과

- 대회 개최를 통한 고용 및 생산유발
- 560만 충청인의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화합
- 충청권 홍보를 통해 대한민국과 충청권의 국제 브랜드 이미지 향상
- 2032 서울-평양 올림픽과 연계하여 스포츠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현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광역시도에서 「2030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2030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2월 7일 충청권 지자체장들은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2019

년 12월에는 충청권 지자체 공동으로 ‘2030 아시안게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을 공고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가 열렸으나 560만 주민이 거주하는 충청권에서는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임.
- 공동개최는 지역적,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충청권 4개 시도가 연대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살리고 개최비용 과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또한 정부의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 추진에 발맞춰 사전대회 성격의 아시안게임 개최로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를 홍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를 확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충청권의 2030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는 국가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2019년 12월에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발주한 ‘2030 아시안게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유치의 당위성만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항과 다른 충청권 시도의 해당 의회 동의안 제출 일정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끝.